

**[보도자료]****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 방안연구: “젠더·장애·빈곤” 삼중의 차별 속에서의 자녀양육**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dlsqml21@naver.com)

보고서 관련 문의 : 홍 승 아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49, 이메일: hongsa@kwdi.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전국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2007. 5.21~7.15). 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은 “젠더·장애·빈곤”의 삼중차별 속에서 자녀양육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양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긍심과 보람,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지난 30여년간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제도화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권과 사회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존의 장애정책은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달리 장애와 젠더라는 보다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지적인 장애복지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현실과 정책지원 방안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의 경험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양육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이들이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 이들의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은 어떠한지, 향후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욕구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 실태조사 결과

-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신체적 돌봄, 정서적 돌봄, 외출하기, 바깥놀이, 병원 데려가기, 양육비용의 부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양육비용의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외출하기, 바깥놀이 순으로 나타나,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문제와 이동성의 제한으로 인한 양육의 애로점을 지적하였다.

-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족의 지원 및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남편외의 다른 가족의 지원은 낮게 나타나 남편들의 양육참여와 협조는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를 살펴본 결과, 산모도우미, 출산지원금, 가사도우미, 보육료지원, 복지관 방과 후 교실, 학교 방과 후 교실 등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서비스제도를 확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지원 욕구는 자녀의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육아도우미 제공,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교육비 보조, 아동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녀양육과 관련된 감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에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았고, 장애정도에서는 중증 장애여성들이 경증 장애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경우가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여성들의 양육만족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들에게 있어서 양육은 보람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임을 알 수 있다.

- 자녀양육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은 자녀양육은 남편과 공유해야 할 책임이며, 국가와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의식수준이 상

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 여성장애인의 부모역할 지원

- 기존의 양육지원 도우미제도를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정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서비스 접근성, 형평성의 문제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전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서비스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 - 장애부모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 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우선이용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습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여 책임어주기, 숙제 봐주기, 공부 봐주기 등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 장애인부모를 둔 자녀의 야외활동이나 체험학습,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한다.
- 장애부모 자녀를 위한 또래집단 조직 및 멘토링사업을 지원한다.

##### - 경제적 지원

- 장애부모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더하여 자녀양육에 따르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독립적인 경제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빈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장애와 장애인, 장애부모, 장애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